

Japan Weekly Digest

2011. 3. 05. ~ 3. 11.

금주의 이슈

- 日정부, 1~3월기 성장을 상향 조정
- 日기업 69%가 해외 진출 계획
- 소니, 2010년 인도 TV시장에서 1위 차지

경제산업성 동향

- 가이에다 경산상, 중국과 희토류협력에 신중
- 친환경 정유공장 건설 지원 대책 발표
- 산업구조심의회 개최, 사회보장개혁 논의

일본기업전략

- 도요타 중장기비전 발표, 신흥국 판매 강화
- 日기업, 로봇 연구개발 가속화
- 후지필름, 소니 등 27사 차세대 LSI 공동개발

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EU가 지적한 일본의 비관세장벽



ష업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日정부, 1~3월기 성장률 상향 조정

- 경제기획협회에서 8일 발표한 3월 「ESP 포캐스트 조사」에 의하면, 민간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한 11년 1~3월 경제성장률(평균치)은 전기대비 연1.73%이었음
- 2월 조사치 1.11%보다 대폭 상향. 그 이유는 미국경제 회복과 신흥국의 고성장 요인으로 해외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임
- 11년 4~6월 이후에도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상하고 있으며, 성장률은 2%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

○ 日기업 69%가 해외 진출 계획

- 일본무역진흥기구(JETRO)는 8일,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전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
- 향후 3년간 해외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년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69%로 금융위기 전보다 높은 최고 수준을 기록
- 이는 내수침체 영향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해외시장을 공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
- 조사기업의 60%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 국한하면, 해외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66%로, 1년전에 비해 약14포인트 상향
- 생산거점의 이전대상 국가는 여전히 중국이 1위지만, 4년 전과 비교해 볼 때, 중국의 비율이 줄고, ASEAN의 비율이 늘어남

○ 소니, 2010년 인도 TV시장에서 1위 차지

- 美조사회사 디스플레이서치는 8일, 소니가 작년 인도 평판TV시장에서 공급량을 96%로 확대시킴으로써 시장점유율 22.1%를 기록.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
- 2009년 29.3%의 점유율로 인도 평판TV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는 올해 21.3%로 2위, LG전자는 21.0%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
- 일본 언론은 소니가 유통망 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지난해 인도 TV시장을 집중 공략한 결과라고 분석(90년대 이후, 260개 이상 유통망을 확대)
- 디스플레이서치의 분석에 의하면 LCD TV 경우, 지난해 공급량 기준 100% 성장을 보였으며 11년, 12년에도 60%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. 고속 성장하고 있는 평판TV시장에서 삼성전자, LG전자, 소니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가이에다 경산상, 중국과의 희토류 협력에 신중

- 가이에다 경산대신은 8일, 중국 천더밍 상무부장이 희토류 대체재료 분야에서 일본과 공동연구를 제안 한 것에 대해 “HV, 전기자동차는 일본이 기술 우위에 있는 부분이다. 그런 부분에서 공동 개발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” 라고 언급하고, 중국과의 공동개발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
- 작년 가을, 센카쿠제도(尖閣諸島) 중국어선 충돌사건을 계기로, 중국이 對日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,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, 조달처 확대와 재활용 등 대체 재료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음
- 경산대신의 발언은 공동개발을 통한 기술유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됨

○ 친환경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지원 대책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가솔린 등 석유제품 정제에 필요한 설비효율이나 환경에 탁월한 정유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실증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
- 석유분해 능력, 에너지 절약 등 첨단기술로 대처를 하는 정유공장에게 5억~20억 엔 정도 지원할 방침
- 석유분해 능력향상 장치, 온난화나 대기·수질오염 방지 설비 도입 등이 지원 대상 (실증실험 총사업비는 40억 엔, 경제산업성이 50% 보조)
- 경산성은 향후 5년간, 고부가가치제품 정제비율을 10% 향상시키는 신기술 공동 개발에 착수할 방침. 석유회사의 설비재편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임

○ 산업구조심의회 개최, 사회보장개혁 논의

- 경산성은 7일, 산업구조심의회에서 사회보장개혁을 위한 검토를 착수했다고 발표
- 저출산,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논의하고, 그 결과는 4월말 「사회보장개혁에 관한 회의」에서 보고할 예정
- 검토항목은 △의료, 연금, 간병 등 사회보장급부 효율화 △사업자 및 기업의 사회보장부담은 외국과 비교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 검토
- 의료·간병·건강분야를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, 여성과 고령자 취업환경 정비 등도 검토 과제

□ 일본기업전략

○ 도요타 중장기비전 발표, 신흥국 판매 강화

- 도요타는 9일, 도요다 아키오 사장 주최로 '글로벌 비전' 발표회를 개최. 2015년 연간 1000만대의 승용차와 트럭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
- 하이브리드 기술과 신흥시장에 집중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, 이사회를 개편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전략
- 15년까지 신흥시장 점유율을 40%에서 50%로 확대시키고, 유럽, 미국, 일본시장 비중은 현재 60%에서 50%로 축소하고,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중할 계획
- 도요타 회장은 "앞으로 취할 주요 성장 동력은 신흥시장과 하이브리드 기술이다"라면서 "리먼 쇼크가 다시 발생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도요타를 구축할 것"이라고 언급

○ 日기업, 로봇 연구개발 가속화

- 닛케이신문은 9일, 일본에서는 간병·복지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어,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도
- 파나소닉은 휠체어와 침대가 일체화된 간병 로봇을 개발, 세콤(SECOM)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식사를 도와주는 로봇개발에 성공. NEC는 치매 환자와 대화 상대가 되어 주는 로봇을 개발
- 경산성은 시장규모가 2020년 543억엔, 35년에는 4,000억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, 「간병·복지 로봇개발·보급지원 프로젝트」를 진행. 지원 사례로 작년, 쓰쿠바에 간병로봇 안전성검증센터를 설치

○ 후지필름, 소니 등 27사 차세대 LSI 공동개발

- 후지필름,-dot판인쇄, 소니 등 27사는 정부와 공동으로 「구부릴 수 있는 전자회로(LSI)」의 실용화에 착수했다고 5일, 닛케이신문에서 보도
- 대규모 집적회로(LSI) 인쇄기술을 공동개발하고, 2015년 양산시키는 것이 목표(11년 정부가 21억 엔을 부담, 5년간 55억 엔을 투자예정)
- 박막형 TV, 전자종이, 몸에 부착하는 건강관리센서 등이 실현될 전망으로, 전기제품의 형태나 성능이 대폭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음
- 올해 3월까지 민간 27사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기술연구조직을 설립할 예정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“EU가 지적한 일본의 비관세장벽”

□ EU의 대외 통상전략

- EU위원회는 중국, 인도, 브라질 등의 국가와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EU 통상전략을 재검토하여, 06년 10월 「글로벌 유럽」 발표
 - 아시아를 중심으로 우선 FTA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표명, 관세폐지뿐 만 아니라 △비관세장벽 △공적조달 및 서비스 △투자 △자원 에너지에 대한 액세스 △지적재산권 △경쟁정책 △지속가능한 개발 등 FTA 대상이 아니었던 분야도 중시
- EU는 통상전략을 발표한 이후,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
 - 일본은 FTA 우선 협상대상국이 아니어서 보고서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
 - * 일본은 우선협상국가로 언급되지 않았으나, EU는 95년부터 규제개혁에 관한 정부간 대화를 지속해 오고 있음

□ EU가 제기한 일본과 FTA협상 문제점

- EU는 ‘과거 10년 동안 일본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’ 고 표기
 - 일본과 FTA협상에서 ‘일본시장 투자에 관한 구조적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
- 11년 2월 26일 주일 EU대사도, 일본과 FTA에 대해 “아직 교섭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”라고 부정적 견해를 표명
 - 구체적으로 (1)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조달 촉진 (2)외국기업의 투자 조건완화 (3)국제 기준 인증 수용 등 일본의「비관세장벽」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
 - 특히, 정부조달 투명성, 의료기기, 자동차 안전기준 등「비관세장벽」분야 개선을 요구

□ 시사점

- EU가 일본에 제기한 비관세장벽 문제는 우리나라와 처한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EU와 협력하여 공동연구, 세미나개최 등 대응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임
 -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시키기 위해 EU와 공동대응을 하게되면 우리나라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사례로 본 한국기업의 對日진출전략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3월5일
*출처:<http://www.iti.or.jp/kikan83/83masuda.pdf>
- (2) 『일본기업의 해외전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3월5일
*출처:<http://www.iti.or.jp/kikan83/83tejima.pdf>
- (3) 『미래도시 프로젝트』 경단련, 3월8일
*출처:<http://www.keidanren.or.jp/japanese/policy/2011/013/honbun.pdf>
- (4) 『10년도 일본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조사』 JETRO, 3월8일
*출처:<http://www.jetro.go.jp/news/releases/20110308884-news/siryu.pdf>
- (5) 『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』 국제협력은행, 3월9일
*출처:http://www.jbic.go.jp/ja/report/reference/2010-069/jbic_RRJ_2010069.pdf
- (6) 『호쿠리쿠지역 기업의 국제화 사례』 경제산업성, 3월10일
*출처:<http://www.chubu.meti.go.jp/kokusai/22nova/jirei.pdf>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3월 7일(월)	○ 2월 외화준비고 발표(재무성) ○ 1월 경기동향지수 발표(내각부) ○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 기자회견
3월 8일(화)	○ 1월 국제수지 발표(재무성) ○ 2월 Money Stock 발표(일본은행) ○ 2월 기업도산 건수 발표(민간조사회사) ○ 2월 경기Watcher조사 발표(내각부)
3월 9일(수)	○ 1월 기계수주 통계발표(내각부) ○ 도요타 글로벌비전 발표 ○ 1월 산업기계수주 금액 발표(일본산업기계공업회)
3월 10일(목)	○ Cool 재팬 관민회의 개최(경산성) ○ 10년10~12월 GDP 발표(내각부) ○ 2월 기업물가발표(일본은행)
3월 11일(금)	○ 산업구조심의회 기본문제위원회 개최(경산성)